

박홍수 농림부장관과 간담회

편집부

양봉농가는 협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하고, 협회는 조그마한 것보다는 큰 방향을 보고 가야하며, 양봉업계 스스로가 정화/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간담회에서 말했다.



▶ 농림부장관실에서 면담 (좌측부터 : 전기현 회장, 박홍수 농림부장관)

지난 7월 12일 14:30부터 전기현 회장, 황협주 부회장, 남진선 부회장, 최규칠 사무총장과 농림부 실무담당관인 이상수 축산경영과장, 민영태 정책과장이 배석한 가운데 약 40분 동안 농림부장관실에서 간담회시간을 가졌다.

이날 박홍수 농림부장관께서는 최근 양봉업계의 내부적인 갈등과 양봉산업에 관련된 문제점, 발전 방향에 대하여 하나하나 꼬집어 지적하면서, 양봉협회/업계는 조그마한 것 때문에 큰 것을 놓치고 있다고 말하고, 양봉협회는 큰 틀에서 생산농가와 판매업체간의 교량적인 역할과 더불어 생산농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고 양봉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양봉업계에 종사하는 모두가 스스로 정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이를 실천하고,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항생제는 외국수준보다 높은 항생제 분석능력을 갖추어 무 항생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여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4개 양봉농가 현장을 방문하여 현 실태를 파악해본 후 자신의 느낌을 양봉농가들이 순박한 것을 떠나서 욕심이 없다는 말로 표현했다.

밀원수 식재사업과 관련해서는 협회/양봉농가가 식재하는 것 보다는 산림청에서 식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했으며, 양봉업계가 좋은 집안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화목해야 하며 협회와 리더자를 중심으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수 농림부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이번 기회를 통하여 모든 양봉업계는 서로의 비방을 삼가하고 우리 스스로가 자성하여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는데 협회를 중심으로 모두의 힘을 모아 하겠습니다.